

광주·전남·전북, 범호남권 관광 활성화 힘 모은다

서울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

무안공항 연계 광역 관광상품 개발
내년 '호남권 관광문화 주간' 추진
명에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 위촉도

광주와 전남도, 전북도가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범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나선다.

21일 광주시·전남도·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남권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대표축제, 추천코스를 전국 관광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호남권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명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남권의 관광 발전 가능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호남권의 주요 관광 자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각 지역은 호남 고유의 문화와 역사,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와 프로그램 통해 방문객에게 독창적이고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음을 강조했다.

3개 시·도는 2025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광주-전남-전북'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고, 2025년 호남권 관광문화 주간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3개 시·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관광 자원의 발굴, 혁신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호남권 명예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로 인플루언서 투르수노바 구절(유튜브 구독자 23만명)과 우마로브 후산존(유튜브 구독자 82만명)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행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그동안 지역관광공사 등과 함께 호남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광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코리아 투어리즘 로드쇼에 참가해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전북은 천년의 역사를 함께 한 한 뿌리로 관광분야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호남권의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권 연계 활성화로 향후 호남권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호남권이 하나로 뭉쳐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물론, 자연경관과 현대적인 매력을 겸비한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여행지를 제공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고 강조하며 "2025 호남권 관광 활성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업계와 협력해 호남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전남도,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속도

13개 구간 1675km 국비 확보 조선산업 다각화 탄력 등 기대

전남도가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서 대불산단 2단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속도 및 산단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중심의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록이나 철 구조물 등 조선해양 기자재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

이 대형화됨에 따라 높이 32m 이상의 메가 블록 생산이 증가했지만, 낮은 전선주가공선로(8~12m)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용 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선주를 만나면 전선을 절단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공장 입구에 전선주가 있으면 메가 블록 제작이 불가능했다.

대불산단은 넓은 공장 면적과 산단 내 8차선 도로, 인접한 대불항, 많은 숙련 인력 등 블록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총 13개 구간 1675km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다. 지난 2023년 선정 구간을 합하면 총 20개 구간, 4266km에 178억원 규모의 전선 지중

화사업이 진행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대형선박 메가 블록 등 제조·운송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경우 대불산단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학교, 도시재생지역 등 도시 권역에 국한됐으나,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노후산단'이 추가로 반영됐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선 지중화 외에도 자동화·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대불산단 블록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조선산업 다각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상가 공실률 해소 도시계획조례 개정"

소규모·중대형 공실률 전국 웃돌아

광주시가 지역내 상가 공실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가공실박람회'에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통계포털 상권별 상가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7.8%로 전국 평균 6.5%보다 높다. 또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4%로 전국 평균 12.7%를 웃돌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거외용도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상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대

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설계를 통해 상권에 사람을 유인하고, 상권 활성화(르네상스) 사업도 추진한다.

강 시장은 이날 박람회 참석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면담했다. 세종시 상가 공실 현황, 박람회 개최 목적, 공실률 해소를 위한 세종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지역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상가 공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세종시에서 특별한 상가공실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배우러 왔다.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잘 살펴 적용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